제322회국회
(임시회)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2월17일(월)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마.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 ····· 1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마.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재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국회 제7차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2014년 및 2015년에 국제경기를 담당할 4개의 조직위원회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장관님과 각 조직위원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여러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여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강운태 위원장께서는 다른 일정 관계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업무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마.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김재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와 4개의 조직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입니다.

존경하는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김재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열린 특위에 이어 청마의 해인 갑오년에 다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준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소치동계올림픽의 열기가 한껏 고조된 오늘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정부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동안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제경기대회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축제로 승화되고 스포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민에게는 감동을, 개최도시에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목표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김재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해서 향후 국제스포츠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국제경기대회의 그동안의 주요 성과 및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드겠습니다.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에서 2쪽까지의 일반현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곧이어 조직위원회별로 상세한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제경기대회 일반현황은 배포된 자료로 대신하고 3쪽의 주요 성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선수단이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훈련 지원, 코리아하우스 운영 등을 통해서 참가 선수들이 제 기량을 후회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우리나라가 세계반도핑기구의 이사국으로 재진출했습니다. 스포츠 윤리가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017년 FIFA U-20 월드컵을 유치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기존 경기장을 활용해서 치러질 예정이기 때문에 국제경기대회 유치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위원회의 안건은 아니지만 4년 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대회시설의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4쪽부터 5쪽까지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잠시 후 조직위원회별 업무보고가 있으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보고드립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정부는 금년 9월 개최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역대 최고의 대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경기운영과 안전, 숙박, 교통 및 문화행사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최되는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도 체육을 통한 자기 극복과 인류 화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세계 지성인들의 즐거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을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5쪽입니다.

국제경기대회가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경기대회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해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서 이 법이 논의될 예정인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요즘 소치동계올림픽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기사를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올림픽 등 대형 국제행사는 철저한 준비를 하더라도 아주 작은 무관심이 대회 전체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조직위원회, 지자체는 역대 대회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서 대한민국의 스포츠 행사는 세계 최고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국제경기대회도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지원,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최소화하는 관리 감

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국제경기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유진룡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을 한다고 목이 쉬셨는지 너무 무리하셔 가지고 감기가 드셨는지,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김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불철주야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직위원회는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대회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해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열린 인천실내무도대회와 인천전국체육대회를 통해서 얻은 현장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지금이라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꼭 214일 남았습니다.

저희 조직위는 지금까지 해 온 준비 과정을 다시금 꼼꼼히 되돌아보고 살펴 더욱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대회 개관 및 일반현황,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 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있는 대회 개관은 이미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대회 운영을 위한 총예산은 당초 5454억 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정부의 강력한 예산 절감 의지로 축소돼서 총 48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저희 조직위는 2007년 대회 유치 이후 지금까지 대회 운영의 단계별 계획 수립, 주관 방송사 선정, 정보시스템 구축, 2013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등 대회 준비를 착실하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 입장권 판매, 경기용 기구 준비, 운영요원 선발 등 대회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구체적인 업무현황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14쪽 대회 시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쓸 경기장은 총 49개이며 선수 훈련시설은 48개소에 이릅니다.

경기장 중 13곳은 서울·고양·부천·안양 등 9개 협력도시의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아시안게임 대회 전 또는 대회기관 중 개최되는 OCA·NOC 관련 여러 국제회의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국제경기특위에서 위원님들께 건의드렸던 마케팅권리인수금 조세감면 법령 개정이 윤관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안녕하십니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입니다.

오늘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의 김재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

져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는 대회 준비를 하면서도 부족한 대회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이제는 주어진 예산 799억 원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일반현황은 그동안 수차례 보고드린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주요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회 운영 예산은 지난 연말 본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약 200억 원이 증가된 79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권리금 협상 및 APC와의 개최계약서 체결입니다.

그동안 권리금 문제로 대회 개최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서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다행히 지난 1월 초에 지불 방식에 대한 이견이 저희들 의견대로 원만히 합의되어서 APC와 개최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종목별 경기 운영방식 협의 등 본격적으로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회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은 분야별로 통역이나 의무 등 일정 부분 조금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마는 총 계획 대비 약 106%의 신청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저희 조직위에서는 장애인 선수·임원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약 820여 대의 차량을 확보할 계획이고 이 중에 휠체어 선수의 수송을 위한 특장차 267대 중에서 현재 253대를 확보해서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대회 기간까지는 전량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수촌은 이미 1613세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2개 동 243세대는 대회 경기지원요원 숙소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경기용 기구는 현재 884종 4만 7000점으로 조사되었으나 그동안 아시안게임과 경기용 기구 연계 사용에 대한 협의를 기완료한 상태로 예산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13쪽입니다.

현재 편안하고 쾌적한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이미 확보가 다 돼 있고 공식호텔은 7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화 봉송은 아시안게임 성화 봉송과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인천 지역만 성화 봉송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테러 및 안전대책은 정부 각 기관과 협조하여서 지금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제1차 아시안게임조정위원회가 내일모레부터 3일간 인천에서 개최가 됩니다. 조정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사전에 대회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상호 협의·조정하는 것으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에는 계획된 참가국 42개국의 선수단장 세미나, 6월에는 계획된 사전대표단등록회의를 통해서 모든 참가 선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테스트 이벤트로 7월에 휠체어농구대회와 휠체어댄스스포츠대회를 개최해서 대회 운영과 지원에 대한 요령과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이미 경기장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은 처음부터 지금 계속 협약을 체결해 나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장애인 임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서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회정보시스템 및 통신 인프라는 현재 구축 중에 있으며 대회방송 주관 방송사는 KBS로 선정하고 개·폐회식과 주요 13개 종목 중심으로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개·폐회식 준비입니다.

개회식은 10월 18일 인천문학경기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스토리 구성안은 현재는 장애를 극복한 선수들과 조력자의 순수한 열정과 도전을 축하하는 'Impossible Drives Us'라는 주제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개·폐회식 장소는 무대 설치라든가 리허설 기간 부족, 규모의 적정성, 장애인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당초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문학경기장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21쪽,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수익사업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직위는 총운영비 799억 원 중 중앙정부가 388억, 시비 184억,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할 후원금이 227억 원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 300억 이상을 목표로 국내 30대 그룹과 인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는 기업들의 부담감 증가라든가 광고 효과 미흡,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관심 부족 등 수익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대회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수익사업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서 국회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의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의화 위원장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각별히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정의화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의화입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제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특위에서는 제가 업무보고를 하기로 그렇게 강운태 시장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배석하고 있는 우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석 사무총장입니다.

(간부 인사)

국제경기대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시는 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준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지난 5년의 대회 준비기간 동안에 대회 기획 그리고 인프라 구축, UN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단계적으로 로드맵에 따라서 착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FISU와 끈질긴 협상으로 당초 76개의 경기시설을 68개로 대폭 축소하고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3개 경기장만 신설하는 등 흑자 대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대회 사상 최초로 도심의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선수촌으로 활용하고 대회가 끝나면 민간에 인도하는 혁신적 방안을 100%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한 37%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회가 1년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최근에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현장 운영에 대비한 실전 체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회 준비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내년도 국비 지원과 후원 기업 유치에도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김윤석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김윤석입니다.

대회 준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대회 준비 기본 전략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건의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 분야별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대회 기획 분야입니다.

체계적인 대회 운영 준비를 위해서 마스터플랜부터 개인별 행동 매뉴얼까지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준비된 계획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실제 대회처럼 테스트 이벤트를 개최해서 현장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인프라 구축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국제연맹과 협상 끝에 당초 76개 시설을 68개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신설은 3군데, 개·보수는 65개소입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65개 경기장의 개·보수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현재 신축 중인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양궁장 등은 내년 3월까지 준공하여서 대회 시험 운영과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종목별 경기가 개최되는 경기장은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광주U대회는 광주·전남에서 분산 개최하게 됩니다.

주경기장은 광주는 16개, 전남 18개, 전북 3곳이며 연습장은 전남 지역 18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선수촌은 현재 공정률은 37%이며 선수촌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내년 3월까지 완공하여 개촌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광주U대회의 선수촌은 화정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현재 민간에 분양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최첨단 IT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대회운영통합시스템 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종목별 경기 실황을 전 세계로 전파할 주관방송사는 현재 방송 3사 등을 대상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며 금년 4월까지는 주관방송사를 선정하여 중계방송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대회지원 분야입니다.

2012년부터 우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현재 5만 2000명을 모집해서 훈련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현장에서 외국인을 상대할 수 있는 외국어 능통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분야입니다.

개·폐막식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광주의 특성이 담긴 품격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화봉송 및 다양한 계기성 이벤트를 통해서 범국민적인 축제 분위기를 고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분야입니다.

지난해 1월 SK와 정보통신 부문에서 후원계약 566억 원을 체결하였으며 국제연맹인 FISU와 3년간 마라톤협상 끝에 조직위가 모든 마케팅 권리를 위임받아 자체 수입을 100%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은행·자동차·보험 등 분야별 후원금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12쪽 대회홍보 분야입니다.

올림픽 스포츠스타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전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유니프렌즈 3600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주요 행사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하여서 광주U대회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데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또한 대회홍보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다양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채널, 대학생 서포터즈 네트워크, 대학 순회방문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의 차별화된 국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조직위에서는 유엔과 함께 진행하는 공동프로젝트로 대학생의 멘토링 시스템, 그리고 유스리더십프로그램 등을 추진해서 세계 청년들을 미래 체육지도자로 양성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 밖에도 광주대회의 개최 성과를 세계 대학스포츠 발전의 유산으로 남기고자 반도핑 교육교재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는 광주에서 FISU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제적 체육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내년도 국비지원입니다.

2015년은 대회가 개최되는 해로 시설 완공, 개·폐회식 그리고 방송통신 분야, 모든 대회 준비가 완료돼야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계획된 국비가 차질 없이 확보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 드리면서 내년에 소요될 국비예산 770억 원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김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아 매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열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작년 연말에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총 소요예산 미반영분에 대해서 증액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내년 2015년은 대회를 최종적으로 완비하고 진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필수 소요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건의사항 순으로 하되 주요 현안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 변경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 종목과 관련해서 육상 종목에 상이군인 종목을 추가 개최하는 것으로 대회를 주최하는 CISM과 합의하였습니다. 상이군인이 참가하는 최초의 종합대회로서 그 의미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범종목으로 돼 있는 양궁을 정식종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CISM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대회 총 예산은 1872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연도별 주요 추진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 중에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 관련 기관 워크숍, 대회 개최지역 방문 등을 하였습니다. 작년 9월에는 CISM과 최종 계약서인 조직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조직위는 3단계로 개편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대회 종합정보시스템은 첨단 IT기술 적용으로 빠르고 정확한 대회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 마케팅 사업은 대회 특성과 지역문화를 연계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준비는 일반 종목은 지자체의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군사종목 경기장만 신설함으로써 소요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14년 예산 편성 및 15년 재정 확보입니다.

14년 예산 편성은 소요예산 430억 원을 요구하여 280억 원이 반영되어 150억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부족 예산은 사업비 착수비율 조정 등으로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5년 예산 소요는 총 1557억 원으로서 국비 778억, 지방비 467억, 수익금 312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에서는 예산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마케팅 사업의 전략적 추진 등으로 재정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년은 대회를 최종적으로 완비하고 개최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필수 소요예산인 1557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쪽입니다.

대회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문제는 특위에서 여러 차례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련 규정 고려 시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세계군인체육대회는 IOC가 인정하는 국제대회로서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군 상무부대가 주요 선수로 참가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또한 타 국제대회는 국비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과 올해 인천아시안게임이 종료되므로 내년에는 예산 지원 여건이 개선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15년 예산에는 체육진흥기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8쪽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15년 예산사업 중 국비부담금 778억 원 반영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심과 성원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릴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5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염동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 위원입니다.

김영수 조직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간단하게, 우리가 대회를 치르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천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일반적인 국제스포츠대회가 다 그렇습니다만 우선 지역 발전을 통한 지역의 관광수입 확대라든가 이러한 지역 발전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국위선양이라든가 이러한 부수적인, 또 기타 경제적인 효과 등을 보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렇지요, 대회를 통해서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고 또 개최도시가 세계 속으로 부상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결국은 국가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상품을 개발하고 또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임팩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국제대회인데 제가 두 번 인천을 방문했어요.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계 속에 그 도시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관광상품을 좀 만들어서, 지금부터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보다, 대회 전 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여러 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고서에서도…… 물론 조직위원회가 이런 업무하고는 좀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기술상품을 외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스폰서 후원업체를 보니까, 물론 입찰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한국 상품이 결국 세계 속에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여기에 대한 배려도 상당 부분 나타나 있지 않아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말씀하신 대로 관광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국제대회를 치르는 것은 결국 인천광역시의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역시 관광 진흥이 아니겠는가 해서 관광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건의하고 있는데 시민의식의 수준 고양도 우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우선 친절하고 그다음에 질서의식이 있으며 청결의식이 있는 그런 시민의식을 우선 고양시켜야겠다, 그 외에 관광상품으로서는 상당히 인천광역시가 굉장히 유리한 여건입니다. 항만과 공항이 있을뿐더러 150여 개의 아름다운 도시를 거느리고 있는 데 비해서 조금만 그것을 개발하면 자연관광지도 많고, 두 번째는 의외로 인천지역에 의료관광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의료관광까지 같이 포함해서 개발할 것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1년 동안 국제대회를 잘 살펴봤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조직위원회가 바로 그런 기술상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마케팅하거나 관광상품을 미리 만들어서 이것을 마케팅하는 노력, 또 그런 부서, 팀, 인원이 전혀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제가 이런 질의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나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나 그리고 문경의 세계군인체육대회나 그 주체, 체육대회 주관자의 여러 가지 경쟁력 확보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늘 장관님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조직위원회가 하든 문체부가 하든 또 시가 하든 구체적으로 이런 기술상품을 파는 것 그리고 관광상품을 미리 만들어서 연

계해서 마케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제가 인천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전혀 그러한 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 지금부터라도 미리 상품을 만드세요, 관광상품을. 그리고 기술상품도 여러 가지, 물론 여러 후원사가 있습니다마는 후원사 외에 한국 상품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노출, 그러한 마케팅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위원님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인천시와 더욱 협조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우리 사실……

○염동열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니까 박태환 수영장 그리고 여러 경기장이 굉장히 부실공사로 인해서,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실공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인이 예산이 제때 투입되지 않아서 졸속공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이건 어차피 개최도시인 인천시가 그러한 베뉴(venue) 시설은 다 책임지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초반에 언론에서 조금 심하게 다뤄지지 않았나, 안정화 시기가 지나면 다 원만히 대회 진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지요.

○염동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유진룡 장관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요 며칠 사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를 해서 금메달을 따고 그 선수가 러시아 국기를 들고 경기장을 누비는 것을 국민들이 보면서 우리 체육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경기를 유치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매년 국제경기가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국제 스포츠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편에서 올라가는 데 반해서 우리 스포츠계의 관행이랄까 문화가 대단히 아직도 봉건적이고 낙후돼 있는 것은 아닌가.

안현수 선수의 귀화가 실력 위주의 선수 선발이 안 되고 파벌이나 비리·부조리에 의해서 선수가 선발되고 있다는 그런 단면을 보여준 것 같아서 말이지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장관께서 공식적인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것 같은데 국민들께 앞으로 어떤 각오로 체육계를 주무장관으로서 이끌어 나가실지 각오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도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 국적으로서 메달을 따고 러시아 국기를 들고 링크를 도는 것을 보고 굉장히 착잡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과 체육계의 어떤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한 분노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육계에서 고질적인 부분이 파벌주의하고 조직의 사유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체육계가 정상화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게 비단 쇼트트랙에 국한돼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동안 여러 종목에서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문제점도 지적이 돼 왔으니만큼 체육계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체육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인천조직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통일부가 발표한 건데요, 북한 중앙통신이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남녀축구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요.

벌써 인천시는 몇 년 전, 2011년 11월에 아시아올림픽평의회를 통해서 북한에 인천아시안게임 참여를 요청하는 그런 노력을 벌인 바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북한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참여 통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아직 없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게 언제까지 참여하겠다는 통보를 해 와야 되는 것이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원래 엔트리를 우리한테 제출할 기간이 있습니다만, 8월 15일까지 아마 엔트리 마감시간인데 그렇게 해야 9월 19일 개막에 맞춰서 차질 없이 하겠는데 아마 그때까지는 엔트리를 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북한은 부산아시안게임 이외에 도하·광저우를 비롯해서 계속 아시안게임에 참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OCA에서도 퍼펙트게임을 위해서 북한의 참석을 강력히 종용하고 있고……

○윤호중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OCA 45개 회원국 중에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나라는 유일하게 북한입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딱 북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래서 북한이 참여해서 남북이 함께하는 아시안게임으로, 아시아 전체가 참여하는 아시안게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면, 선수단만 올 것이 아니라 북한 스포츠계를 비롯해서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력단 있지 않습니까? 국제협력단이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여해서 남북 간의 체육 교류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예,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宰榮 委員 새누리당 이재영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체육계의 부조리, 그리고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저희가 체육계의 정상화를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선 대한체육회 내에 구성하는 것보다는 저희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구성을 해서 객관적인 공정성을 보장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이라도 저희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2차관 주재로 각 정부의 담당자들이 모인 TF를 구성을 해 갖고 지금 전반적인 비리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는 스포츠의 공정성이 보장될 때까지는 스포츠의 어떤 파벌, 조직 사유화, 각종 비리 등을 제보받을 수 있는 제보 창구를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李宰榮 委員 공정위원회는 그러면 언제쯤 설립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법적인 근거를 지금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일단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에 세워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준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李宰榮 委員 그러면 여기에는 선수들도 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선수들도 당연히 참여하게 됩니다.

○李宰榮 委員 하나의 민원 창구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선수, 임원, 각종 심판 그다음에 심지어는 사회단체까지도 다 같이 모여서 스포츠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宰榮 委員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따로 나중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宰榮 委員 그리고 김영수 위원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염동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관련된 건데요. 여러 가지 부실공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남은 7개월 동안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이 돼서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아시안게임을 치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7개월 만에 완공이, 보

수가 진행이 될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있는데 어디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베뉴(venue) 되는 경기장의 건설은 어디까지나 개최도시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경기장이 건설이 안 되면 경기를 치를 수 없으니까 우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보도가 날 때마다 관계 경기 담당자들이 현장을 가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기를 치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인가의 여부를 보고를 해 오는데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李宰榮 委員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 있는, 건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나 보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시설부가 있지요.

○李宰榮 委員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런 부실공사 같은 것들이 충분히 고쳐서 쓸 수 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쓸 수 있다, 예.

○李宰榮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개 경기장 중에 몇 개가 완공이 됐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지금 우리가 16개 경기장을 신설합니다, 인천에서는. 그중에서 10개는 이미 완공이 됐고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완공되는 것이, 주경기장이 금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완공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李宰榮 委員 그것과 관련돼서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주경기장을 포함해서 16개 경기장이 신설이 되는데 사후관리가 지금, 그러니까 사후 이용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상당히 그 문제는 저희뿐 아니라 다른 개최도시가 다 같이 하는 고민입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16개 경기장이 대개 각 구에 공평하게, 각 구에 다 하나의 스포츠 복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게끔 공평 분배됐기 때문에 일부 경기장에 대해서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서구에 짓는 주경기장이 사후를 예상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서는 상당한 수익, 상암동에서 지금 상암구장이 좋은 선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많은 수익을 올려서 그것을 가지고 적자 내는 데를 보전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李宰榮 委員 상암동이 얼마가 들어서 만들었고 지금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李宰榮 委員 그게 좋은 사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정도는 나중에 좀 알려 주세요. 왜 이게 좋은 사례인지 숫자를 놓고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부할 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宰榮 委員 전반적으로 지금 인천의 채무비율이 굉장히 높고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 하여튼 향후의 사후 활용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李宰榮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익 위원 장관님, 장애인아시안게임하고 전국체전하고 날짜가 이틀 정도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조정됐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것 조정됐습니다.

○최동익 위원 감사합니다.

안현수 선수 사건을 보면서 지금 체육계의 부조리나 비리, 빙상연맹에 모든 것을 너무 뒤집어씌우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지목받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쇼트트랙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규정을 만들고 유리하게 했던 어떻게 보면 쇼트트랙에 있어서는 영웅적인 인물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내용을 보자고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 선수에게 자유롭게 진로에 대한 선택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성남시청으로 가느냐, 한체대 대학원으로 가느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뭘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부분은 개인의 선택……

○최동익 위원 아니, 그 문제가 대두되고 언론에 나고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뭘 했냐고요, 그 당시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4년 전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을 할 때 안현수 선수가 부상을 입었을 적에 안현수 선수를 의도적으로 떨구기 위해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미리 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 당시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때 문화체육관광부 뭐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다음 질문 주시지요.

○최동익 위원 성남시청이 쇼트트랙 실업팀이 해산되고 나서 안현수 선수가 갈 곳이 없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뭘 했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 유진룡 장관님 '소오강호'를 주장하시면서 했던 그 소신, 대통령께도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소신, 저는 그것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너무나 언론과 시류에 휩쓸리면서 과연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이것을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리로만 몰고 가는 형태는 앞으로 결코 제가 보기에는 발전의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먼저 장관님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런 사태가 예측되는 것이 벌써 세 번이나, 진로 문제, 국가대표 선발 문제, 성남시청 해산 문제 이런 것이 이미 제기됐을 때 나타났고 예상됐던 문제점들을 침묵하고 있다가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 국기를 들고 금메달을 따니까 이제 와서 빙상연맹이라든가 체육계의 고질 운운하면서 그쪽에만 책임을 돌리는 태도는 저는 유진룡 장관님답지 못하다, 소오강호를 주장하면서 속된 말로 배 째라라고 했던 그 소신은 어디로 가고 왜 본인들의 잘못에는 침묵하면서 모든 것을 체육계로만 돌리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가 안 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첫 번째, 안현수 선수의 문제는 빙상계의 파벌주의에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빙상계에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그런 성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전반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사과를 드릴 게 있으면 사과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단순히 빙상연맹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체육계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파벌주의와 조직 사유화의 문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동익 위원 저는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수들의 진로 선택의 문제, 실질적으로 프로야구든 프로축구든 고등학교·대학교 진학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선수들의 진로 선택권이 일부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감독과 일부 지도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지 지금 파벌이다, 일부 소수 사람들이 이것을 전횡을 하고 있다……

세상에 어느 조직이라는 게 다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조직의 원리이고, 다만 그 운영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짚어 나가야지 실질적으로는 불공정한 제도를 정부가 묵인해 놓고 그 사람들이 전횡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제거해 나간다면 실질적으로 잘못해 나가면 또 체육계의 지도자가 실종되는 문제가 야기되면서 앞으로 체육계가 더 몰락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시스템적으로 그런 불공정하고 불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지 인적 쇄신이라는 측면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공이 있었던 사람도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다 제거해 나간다면 잘못하면 더 큰, 제2 제3의 안현수뿐만이 아니고 아예 몰락하는 사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언론이나 국민들이 인터넷에서 뭐라 그러는데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정말 원칙대로, 소신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님 지적이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진로 선택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경우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도자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수가 진로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참아 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워 주는 그런 풍토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고질적인 게 지도자의 말을 안 들은 선수는 완전히 사장을 시킨다 이런 분위기가 거의 만연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위원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열리는 문경·예천 출신의 이한성 위원입니다.

유진룡 문체부장관님을 비롯한, 또 김상기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을 비롯한 네 분의 조직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상기 조직위원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이 좀 부족했지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당초에 107억이 정부에서 올라왔는데 추가로…… 참, 108억이 정부에서 올라왔지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런데 추가로 107억을 더 증액해 달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이한성 위원 그래서 국방위 단계에서는 앉아 계시는 우리 김재윤 위원장님께서 또 예산소위까지 참여하시면서 참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그 단계에서 전액 반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결특위 가서 그것이 또 깎여 가지고 목적 달성을 못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정부안 예산편성이 적게 된 것은 예산편성을 하려면 간이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조직위가 늦게 편성이 돼서 간이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기재부하고 KDI하고 협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었다는 부분입니다.

○이한성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산 착수 시기, 진행 시기, 진도를 조절해 가지고 올해는 겨우 넘어가겠다는…… 되긴 되는데 올해 부족했던 예산을 내년에도 증액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런데 지금 771억을 해야 됩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국비가……

○이한성 위원 국비가 771억입니까? 국비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렇게 참 엄청난 부담이 지금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건의사항에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금 쓰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데,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그것은 이미 국방부하고 문체부하고 MOU를 체결했고 지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이고 시설 용도로 쓰는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실무 협조 중에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유진룡 장관님은 지금 침묵을 하고 계시는데 협조가 조금 미진한 것이 아닌가, 물론 771억은 국비니까 국비가 기재부의 정규 재정이든지 기금 재정이든지 사실은 둘 중 하나에서만 나오면 되긴 되거든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어쨌든 지금 사무총장 나와 계십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사무총장은 지금 벨기에의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이한성 위원 물론 여기저기 쫓아다니느라고 바쁜데 나는 사무총장이 취임한 후로 한 번도 못

봤어요. 너무 바빠 가지고 저하고 예산 편성은 누가, 중령급에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위원장님은 제가 전화통화를 하는데 별이 어깨에 너무 많이 달려서 그런지 무게가 좀 무거워서 그런지 6개월 동안 얼굴을 못 봤어요. 그렇게 해서 문체부와 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지금 그런 면이 다분합니다.

좀 겸손하게, 육군 소장이라도 부탁할 때는 겸손하게 부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굉장히 참 고질적인 문제다. 나는 지금 얼굴을 못 봤어요.

위원장께서도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뭐 예산 편성할 때고 언제고 제가 아직 얼굴을 못 봤어요. 대단히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가 좀 부족하지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이한성 위원 홍보도 빨리 해야 되고, 벨기에에 쫓아다닐 일이 아니라 정말 참 동분서주해야 되고 별이 2개지만 무궁화 2개, 다이아몬드 2개처럼 겸손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770억……

또 거기다가 예산을 당초에 532억 예정했다가 1872억으로 불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비로 지금 30% 부담하기 때문에 당초 한 200억도 못 될 정도로 부담할 것이 467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경상북도도 재정이 그만큼 될는지 또 문경시는 더욱더 큰 문제가 닥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설득이 잘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지금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경북도하고 문경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양측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또 문경시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리고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포항의 우리 현재 시장님하고 협조가 잘됐는데 포항시장님은 지금 도지사 도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이 있을까, 그것에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시고.

또 사실 정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세계군인체육대회의 북한선수 참가가 종속변수라고 할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또 조직위에서 북한선수를 참가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촉발이라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조심스럽게 타진도 하시고, 그렇다면 그것이 오히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그것을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이끌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알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김상기 위원장님, 이한성 위원님은 문경군인올림픽 지역구의 의원님이시고 또 우리 특위 간사도 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사무총장이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이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광주 서갑의 박혜자 위원입니다.

문체부에서 지난해 12월 31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법률안을 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혜자 위원 개정 내용은 대충 그냥 살펴봤습니다. 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가 지자체나 국가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판단에서 개정안 내신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저도 그런 문제의식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장관께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자치단체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국제대회의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가 가령 평창올림픽의 180배가 넘는다라고 한다면 그 국제대회 유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국제대회 유치는 반드시 경제적 성과만으로 따질 수는 없고요, 그때 사회적 성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경제적인 효과는 그다지 중요하

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니,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혜자 위원 제가 이번에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정말 국민적인 관심사고 또 저는 잘 진행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성공을 해야 되고 또 이 성공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다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은 80여 개 국에서 한 2만 6000명 정도 참가할 예정이고 또 대회가 17일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연인원으로 따진다면 44만 2000명 정도 계산이 나오지요? 그래서 국비 지원을 보게 되면 한 5조 2104억 원 이런 정도가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광주수영선수권대회를 보면 수영선수권대회는 200여 개 국에서 참석을 하고 또 2만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대회기간도 26일간에 치러지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따지면 올림픽보다도 많은 52만 명이 됩니다.

또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1100억 원 중에서 가령 30%를 지원해 준다라고 해도 330억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산술상으로 따져 본다라고 한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은 연인원, 참가 인원당 국비가 1178만 8235원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연인원 1명당 국비가 6만 3462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 계산상으로는 18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회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야 되겠지요. 또 제가 구태여 사실은 대구육상경기대회하고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육상경기대회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아도 다 짐작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상으로는 육상경기대회보다 51배, 육상경기대회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장관, 제가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교문위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지요? 특히 특위의 김재윤 위원장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야 의원 154명이 찬성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 가령 정말 우리 문체부에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다 설득을 당할까요? 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아니고요, 지원을 해 드리는데 지원해 드리는 방법이 그 법안 안에 담느냐 아니면 시행령에 담느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감사합니다. 지원하신다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유치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부분을 깊이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문체부의 개입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의혹을 갖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1월 25일 법원에서 유치위 사무총장이라든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선고유예가 내려진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혜자 위원 그 이유를 보면 범행 동기가 개인적인 이익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 또 범행 후 위조 보증서가 원본으로 교체돼서 수영연맹에 제출됐고 국제수영연맹도 이 과정을 모두 다 아는 상태에서 광주를 후보지로 선정했다라는 점들을 법원에서 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법원 판결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박혜자 위원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장관, 이제 법안 심사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진행이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국익을 위해서라면 정부도 이제부터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을 위해서……

○박혜자 위원 법안에 넣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방법에서 지금 여야 의원님들

이 이견을 보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여야 의원 154명이 이미 동의에 사인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점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혜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위원 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국제종합경기대회는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IT가 대회 운영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국제대회의 IT 예산을 제가 죽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 충주조정대회 같으면 1.3억, 평창 같으면 지금 거의 5000억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거기에서 준비하는 시스템들도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내용이 주로 공동개발을 해 가지고 같이 쓰는 것이 훨씬 예산 절약이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령 저희 같은 경우도 소치에서 썼던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다가 계속 쓸 수 있다면 예산이 굉장히 절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지금 일단은 대회별로 IT 예산이 천차만별이다. 어떤 대회는 대회관리시스템만 구축을 하고 어떤 데는 경기결과시스템만 구축을 하고 어떤 데는 한 열 가지 이상을 구축하고 이렇게 천차만별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문체부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면 인천 아시안게임과 광주U대회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대부분의 시스템 모듈들이 필요한 것들이 유사합니다. 대회 관리, 경기 결과, 인트라넷, 대외정보시스템, 지원시스템, 기록 계측, 채점시스템, 다 똑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각각 예산을 잡아서 각각 그냥 개발해서 쓰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폐기되는 것으로, 장비는 거의 리스해서 쓰고 돌려주고 그다음에 시스템개발비는 사장되는 것으로 지금……

○권은희 위원 지금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거기는 한 3.7억을 사용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는 대구광역시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가 이것 쓸 일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다 대회를 치르고 나면 그 지자체가 이것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지자체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관리체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권은희 위원 그래서 자산관리체계를 좀 구축해서 앞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아시안게임하고 광주U대회도 재활용에 대해서 사실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런데 결과가 서로 못 쓴다, 이렇게 해서 각각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결론을 낸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세계대회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기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경기 광명갑의 백재현 위원입니

다.

소치에서 지금 한참 동계올림픽이 중반전을 넘어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백재현 위원 우리가 목표로 한 만큼 목표가 올라가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니요, 아직 목표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목표에 미달하고 있지요? 걱정이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것은 지금 나가 있는 선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안현수 현상이라는 것이 신문에 회자되고 있고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께서도 몇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문체부가 과연 어떻게 풀려고 생각하는지, 아까 공정위원회 위원도 말씀하시고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문제로 풀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시스템을 만드는 측에 초점을 맞추고 무슨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는가 이런 데 주력을 해야지 사람의 잘못으로 몰고 가고 판정하고 한다면 더 많은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옳은 말씀입니다.

○백재현 위원 이번 계기에 정확하게, 대표선수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계 지도자들, 체육계 선수들을 키워 가는 과정을 체계화시키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입시제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생활체육은 더 확대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엘리트체육을 하고자 하는 숫자들은 갈수록 열악해질 것이고 인재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생직업으로 할 수 있는 선수층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어떻게 분리를, 잘 나누어서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제경기 있을 때마다 좋은 선수들은 필요하고 또 능력 있는, 역량 있는 선수들을 길러내고 하는 것이 정부 책임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어떻게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깊게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 점을 지적하고, 그런 데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감사합니다.

○백재현 위원 올해는 아시안게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조직위원장님,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불안하다고 이런 느낌 안 드세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초반에 국고 지원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았었습니다마는 재작년부터 국고 지원이 형성된 다음부터는 다들……

○백재현 위원 지금으로써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났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치르는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최선을 다해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백재현 위원 인천이 이번에 주관하는 만큼…… 인천과 북한은 연접돼 있지요, 백령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북한과 획기적으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송영길 시장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 추진 상황을 짧게 얘기해 보세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저

희들이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개 OCA, 올림픽평의회를 통해서 참가를 권유하고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각종 국제대회에서 관계자끼리 만납니다, 예컨대 장웅 올림픽위원이라든가. 그럴 적에 그 사람들이 책임 있는 얘기는 못 하지만 항상 분위기로 참여할 듯한 분위기를……

○백재현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부 측하고는 어떻게, 조직위원회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그와 관련해서 정부가 복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글쎄요, 북한 쪽이……

○백재현 위원 통일부나 외교부 같은 경우는, 통일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역할도 좀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가 적극적으로 북한 쪽에 참여를 권유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북한 쪽에서 참여하겠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환영이고 그들이 와 갖고 충분히 경기하고 환대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백재현 위원 두고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한두 달 이내에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판단이 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느낌으로서는. 그때를 대비해서 뭔가 복안들을 준비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공동 입장한 것만 해도 꽤 여러 번 했어요. 사실은 지난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거의 이게 자리를 잡았다고 저는 봤거든요, 당연히 공동 입장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지만 지난 2000년대 후반 이명박정부 들어서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해 가지고 다시 도루묵으로 돼 버렸거든요. 그 단계로 죽 갔더라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획기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역할이 됐는데 한 단계가 다시 후퇴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바로 옛날, 2005·2006년, 2006·2007년 됐던 그 시기로 되돌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 대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저희들도 그렇게 열망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 노력들을 획기적으로 해내는 그런 아시안게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얘기를 드립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백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을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먼저 유진룡 장관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정의화 의장님께서 U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자격으로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에서도 몇 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안현수 선수는 금메달을 따서 조국에 미안하고, 우리는 안현수 선수에게 미안하다' 이런 기사부터 해서 후폭풍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대회 중에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안 선수의 귀화가 체육계의 구조적 부조리와 난맥상 때문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얘기를 대회 중에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옳았는가, 혹시 현지 선수단들한테 커다란 부담을 준 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무부처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현지 선수단들한테 영향이 안 갔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우리가 대회 뒤에 전체적으로 결산하면서 아마 특위나 해당 국회 상임위도 열리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이런 문제에 대한 체육회와 주무부서인 문화부의 대안들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정당하게 체육경기에서 보상이 되고 또 어떠한 배경보다는 실력이 우선시되고 또 힘 가진 사람이나, 연맹이 아무래도 힘이 셀 텐데 그런 조직이 힘 약한 선수에게 권위적으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후에 대안들을 한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좀 물어보

겠습니다.

아까 북한팀 참가 노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여러 가지 신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팀은 참석하는 것으로 얘기가 확정이 된 건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자신들이 축구팀은 남녀팀을 보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윤관석 위원 거기서 발표하면 되는 겁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거기서 발표하면 믿어야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러면 그게 전 종목으로 함께 확산될 수 있도록 조직위에서 다방면의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아시안게임이 45개국 아시아, 45개 스포츠를 통한 화합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노력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아시아경기대회 마케팅 권리금 과세 문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전까지는 OCA가 직접 마케팅 활동을 했었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런데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에는 개최국의 조직위원회가 OCA로부터 대금을 지급하여 인수하는 방식으로, 마케팅 권리금 전환 방식으로 바뀌었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렇게 해서 권리를 가져오면서 부가세나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을 했지요, 위원장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렇게 되면 조직위는 애초에 계산하지 않았던 부담을 갖게 되는 건데, 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1억 7000만 불을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 대해서 30%, 약 500억을 지급해야 됩니다.

○윤관석 위원 그렇게 되면 500억 지급하고 원천징수액으로는 200억 정도 수준이 예상되고 있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러면 결국 권리 양도에 따른 원천징수액 200억 가량이 새로 발생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지난번 특위 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국제간에도 상당히 미묘한 전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마는 부산아시안게임 때는 이것을 세금을 떼고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OCA로부터 아주 강력한 항의와…… 그 후 OCA가 정관을 고쳐 가지고, 그것은 세금을 떼지 않고 전부 받도록 정관을 고쳐버려서 결국 이제는 당국에서 징수한다면 저희들이 내야 되는 입장인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부의 예산 축소액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나마 200억 가까운 예산을 또 내려면 사실 그것을 낼 재원이 없는 형편입니다.

○윤관석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마케팅권리인수금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고요, 기재위에서 2월 또는 4월에 상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안 통과시키는 차원에서 역할을 하면서 지원을 할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문화부에서는 알고 계시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알고 있고, 위원님 내신 법안이 기재위에 있기 때문에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렇게 새롭게, 원천징수액의 부담이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에서 잘 해결이 돼서 성공적인 대회 진행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아시아경기대회가 올해 9월에 열리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경기장이 일부 부실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50% 정도 이상은 다 초기에 발생하는 단순한 기계 오작동이나 이런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구조적 부실은 아닌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기대와 관심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대회가 다가오기 때문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위원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말씀 포함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그러한 것이 저희 아시안게임을 아끼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 인천광역시와 최대한 협조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배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윤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윤관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동 위원 울산 북구 출신 박대동 위원입니다.

먼저 문체부장관님, 소치올림픽의 안현수 선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심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중복은 피하면서,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단순히 스포츠를 통한 국위 선양을 넘어서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통합,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저해하는 중요 사안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서 소신과 원칙을 중시하는 유 장관님 계실 때 이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쳐 가지고 시스템을 완전히 한번 정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단순히 평창올림픽 문제뿐만 아니라 각 국제 체육경기대회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부조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꼭 소신을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인천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의 지하철 2호선 공사의 공기가 이번 9월 아시안게임에 맞추어서 완공될 수 있나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그렇지 못한 게 참 유감입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박대동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서구의 주경기장 일대가 대회기간 중에 굉장히 교통대란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 거의 7만 석, 6만 석이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완공이 안 되고 또 2000여 면 정도의 주차장을 한다 하지만 개·폐막식 때 사람이 몰리다 보면 쏠림현상 때문에 뒤엉키거든요.

그래서 교통대란을 어떻게 대처하실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로서 이번 개막식의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수송 문제, 주차장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소치올림픽 개막식에 다녀오면서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하나 얻어 온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치는 아마 안전상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에서 걸어서 갈 수 밖에, 여러 번의 체크를 받으면서, 그런데도 별 불만 없이들 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좀 더 먼 거리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다만 너무 심심하니까 오는 길에 각 스폰서 기업들의 홍보관들을 설치해서 별로 지루하지 않게 그것도 보면서 접근하는, 상당히 먼 곳에 4개 방향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강제 2부제를 실시하고 또 환승주차장을 저 멀리 루원시티인가요, 예정지에 운영한다 그러는데 셔틀버스만 해도 한 800대 정도 이상 된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 셔틀버스 자체가 교통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또 체증을, 그렇습니다.

○박대동 위원 막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박대동 위원 또 하나는 작금의 베이징의 스모그가 굉장히 심해졌다는 보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황사라든지 스모그는 중국과 인접해 있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예, 참 좋은 지적이시지만 다행히 9월 달에는 북서풍이 아니라 남동풍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서 오

는 황사는 없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지만 이런저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번 대회의 기본목표 하나가 탄소저감 및 환경대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관객이라든가 오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동 위원 국제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안전입니다. 다행히 남북관계 분위기가 좀 일신되면서 좋은 기대를 갖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국제적인 테러조직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인천공항이 가깝습니다. 그렇지요? 또 IT가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해킹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전자 관련된 문제들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박대동 위원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사무총장님이 아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눈에 딱 띈 것이 최초로 도심재생방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쓰겠습니다.

도심재생방식, 재건축방식으로 경제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관심이 많은 것은 이것이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지역마다 도심을 재생함과 동시에 경기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하셔서, 꼭 성공하셔서 좋은 성공사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정의화 감사합니다.

○박대동 위원 끝으로 아까 군인세계선수권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법상 제약은 없다고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박대동 위원 어떻습니까, 장관님? 다른 대책이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원래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받으려면 국제경기대회의 유치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회는 유치절차를 따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일반 국고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잘 들으셨습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잘 들었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을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필요하시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알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박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안현수 선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쇼트트랙선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 국기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참으로 멘붕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이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일은 장관께서 사과해야 될 일이고 대통령이 체육계 비리를 척결하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안민석 위원 그게 뭡니까? 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게 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국가적인 어떤 정정당당한 승부정신을 의미하는……

○안민석 위원 아닙니다. 국가 아마추어리즘인데요, 아마추어선수들을 정부가 지원하고 육성하고 사후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 과거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했지요. 지금도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 국가에서 선수들을 키우고 지원하고 메달을 따면 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을 유지하는 국가입니다. 태릉선수촌이 그런 대표적인 경우지요.

그렇다고 하면 빙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일차적인 책임은 특정 지도자, 연맹, 체육회에서 져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국가가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의 특성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안민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 국기를 흔드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서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물론 개인 유 장관님은 아니지만 이것을 관리하고 지원해 온 정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과를 국민들에게 장관께서 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민석 위원 사과할 의사 없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의 주무장관으로서 제가 책임감을 깊이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문제는……

○안민석 위원 그러면 사과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민석 위원 사과하는 것이 정말 용기이고 이후에 대안을 정확하게 마련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안민석 위원 저는 장관이 다음에 국무회의 할 때 대통령께도 우리나라 빙상은 국가가 키워 온 건데 지도자들의, 연맹의 문제가 있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국민에게 궁극적으로 져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용기를 한번 제안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2004년 쇼트트랙 국가대표 구타사건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안민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그 당시에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고 그 자료를 죽 봤어요. 이 사건은 이미 10년 전에 예견돼 있었던 겁니다.

특히 그 당시에 국가대표선수를 어떻게 태릉선수촌에서 구타를 합니까? 여기 선수들의 진술을 보면 '이렇게 지긋지긋한 짐승과 같은 이런 생활 속에서 내가 스케이트 날만 봐도 공포스럽다' 그런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타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감독이 이번 소치올림픽 감독이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언제 알고 계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가기 전에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리고서 그것을 방치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대회 출전을 앞두고 감독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은 대단히 결정하기가……

○안민석 위원 전쟁 중에도 대통령은 장수의 목을 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지금 언행은, 장수들에 대해서 꾸지람하는 대통령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굳이 그 문제……

○안민석 위원 그 감독이 뺑소니 음주운전을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이고, 참 정말…… 이러니까 장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2012년 7월 14일 날에 집행유예 2년이 해제가 됩니다. 그다음 달에 감독으로 복귀를 해요. 알고 계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죄질이 음주 뺑소니예요. 살인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맞았던 그 감독이 또 10년 전에 선수들을 비인간적으로 잔인하게 때렸다고 해서 감독직에서 물러났는데 다시 지금 소치에서 감독을 하고 있어요.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말씀드린 대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고요……

○안민석 위원 그래서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빙상판의 비리를 지도자와 연맹과 체육회와 정부가 한통속으로 묵인 방조하고 있다, 빙상계의 도가니판이다 그런 인식을, 제가 소치에서 만나 본 일부 선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그런 것 이야기해 봤자 뭐합니까? 10년 전에 이미 저희 후배들이 다 진술서 쓰고 그랬는데 소용없어요." 그럽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방점을, 스포츠공정위원회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빙상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모든 비리를 공정위원회 속에서 녹여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에 비리가 있다면, 부정이 있다면 사회에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포츠는 사회를 반영하는 겁니다. 스포츠에만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조직의 사유화, 조직적인 비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은 없습니까? 왜 다수의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체육지도자와 선수들을 비리의 도가니로, 비리의 온상으로 몹니까?

제가 봤어요.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 11명 명단을 봤어요. 이분들 제가 거의 다 아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언론 하면서, 교수 하면서 스포츠 공정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거나 스포츠의 비리·부정을 없애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지금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발표했지요?

이것 왜 이럽니까? 이미 오래 전부터 스포츠 내의 비리와 부정을 없애야 된다고 노력하고 글 쓰고 활동하고 NGO단체 만들어 왔던 언론인, 교수들,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분들 공정위원회에 포함시켜서 그분들의 소신과 철학과 현장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제가 사람들 명단은 안 불러드리겠지만 여기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문제는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겁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말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체육계 비리 척결하라고 하셨으면 제대로 된 공정위원회 인사 구성을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철학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저는 공정위원회 인사 다시 구성하기를 제안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스포츠 3.0과 같은 맥락입니다. 취지는 잘 깔아 놓고서 내용을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위원장 김재윤 안민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번지수를 잘못 읽고 계신 것 같아요. 스포츠 비리·부정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스포츠 공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역대 어느 정권도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53개 중에서 여권이 10명이나 단체회장 하고 있는 데가 역대 정권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거지요. 대통령이 이런 것 지적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윤 안민석 위원님……

○안민석 위원 둘째로, 주무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장관에 꾸지람을 해야 되는 건데 애꿎은 체육계 전체가 비리의 온상인양 대통령께서는 번지수를 지금 대단히 잘못 읽고 있다고 봅니다.

내일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제가 체육행정 담당자로서 분명히 책임을 느끼고 사과를 드린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안 위원님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분명히 제가 담당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지만 제가 굉장히 비통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단순한 체육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저는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께서도 정말 같이 책임을 느끼고 개선하는 데 같이 동참하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동책임은 무책임이에요.

○위원장 김재윤 안민석 위원님, 필요하시면……

○안민석 위원 공정위원회 구성할 때는 적어도 지난 세월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해 왔던 그런 분들을 몇 명이라도 끼워 줘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포함시키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래야지 이게 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다시 상의해서 포함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필요하면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민주당의 김현입니다.

사실은 지금 중요한 국제대회에 나가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현지에 나가 있어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장관께서 지금 답변하는 것의 사과와 그다음에 이후에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 것은 맞지만 답변하는 데 약간 거슬리는 것은 선수들에 부담이 안 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부담이 왜 안 가겠습니까?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엊그저께만 보더라도 이상화 선수하고 김연아 선수가 현장에서 격려하는 것이 현장의 카메라에 잡혔을 때도 그 선수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대통령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문화부에서 다 조정·조율을 합니다, 청와대랑. 그거 이번에 하신 겁니까, 장관님?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업무보고의 내용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업무보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김현 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하실 거라는 걸 미리 점검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가 대통령께 발언을 건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를 준비함에 있어서요, 대통령의 지적사항이나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실 건지는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공무원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업무보고 시에 답변할 내용을 장관께서 준비를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이번 과정에 대통령이 이 중차대한 발언을 함에 있어서 문화부장관이나, 문화부장관뿐만 아니라…… 문화부장관 쪽에서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김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국제 동계올림픽 중에 국제 동계올림픽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하는데 그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사전에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우선 저희가 이번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거는 2014년 업무계획이지 소치올림픽의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린 게 아닙니다.

○김현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어차피 오늘 주요한 내용이지는 않겠지만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요,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은 전체 다 사라지고요, 문광부 업무보고는 안현수 선수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동계올림픽도요, 상당부분 희석이 되고 안현수 선수에 대한 내용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옮겨 갔습니다. 저는 그런 대목에 있어서, 물론 중요한 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에 또는 경기 전에 종합평가하면서 나와도 되는 사안이 왜 초미에 나와서 가 있는 선수한테도 부담이고 가 있는 감독들한테 부담이고, 또 하나는 문광부장관도 전적으로 국제대회에 참여한 우리 선수들이 잘 치르고 돌아오는 것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의 50%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조율을 하고 바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말씀이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직원들의 근무 행태도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적자생존이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한마디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희 업무스타일에 대해서는 항상 정부마다 업무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김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사전에 몰랐다, 사전에 체크가 안 됐다 이것도 크게 상관없다 이

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날은 말씀드렸듯이 저희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날이었지 소치올림픽에 대한 현안을 보고드리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으나 그 의견에 대해서……

○김현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그렇게 업무를 해야지만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주무부처의 장관이나 주무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어떤 지적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전에 전혀 점검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하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거는 위원님과 저희의 어떤 업무스타일의 차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김현 위원 아니지요. 문화부장관께서는 그 업무를 오랫동안 해 오셨던 분이잖아요. 문화부장관 되기 이전에 오랫동안 공직사회에 있었고요. 중요한 보직을 이전 정부에서도 하셨던 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전 정부에서 지금처럼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대해서 잘 몰랐거나 청와대가 그런 일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안 주면 되게 소신껏 활동하셨던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신껏 하세요, 정권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리사 위원 사실 오늘 조직위원회 업무보고인데 제가 문체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업무보고하시는데 발언하신 거는 안현수 문제 같은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 두 번째는 체육계의 비리나 심판 판정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더 철저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언론에서 봤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잘 챙겨라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것이 소치올림픽의 경기력에 지장이 있었다라는 생각은 특별히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다 어떤 어른들의 문제로 인해서 선수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장관님께서도 잘 검토하셔서 이제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일이 주어질 수 있게 이번에 대책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사실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스포츠 3.0에 대해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중에 사람이 잘 선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안민석 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는데, 3명을 했는데 1명밖에 안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당에 있는 저는 체육인으로서 무엇인가라는 상당히 서운하고 아쉬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정위 문제는 제가 작년에 4월인가 공정위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했지요. 그래서 장관께서 설립하시겠다고 했고, 그런데 뜻밖에 한 2주 전에 문체부 정책과의 담당업무하시는 분 서너 명을 해 놓고 차관이 위원장이 돼서 위원을 선임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위원도 잘 선임이 돼야 된다는 우리 안민석 위원님 말씀에 2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계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문체부가 하는데 과연 문체부 안에 공정위 설립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수박 겉 핥기 아닌가?

저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객관적으로 스포츠계를 잘 관리·감독 그리고 또 교육하고, 그것이 충분히 그 안에서 객관적으로 다루어져서 문제가 있을 때 조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가는, 제가 그 법안을 낸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법안도 상당히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로서는 그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서 그 기구 운영에 따른 경상운영의 부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글쎄요, 그게 예를 들면 사람을 임명해야 되고 예산의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러한 사태가 오랫동안, 십수 년 이상 지탱해 온 수많은 일들을, 아까 우

리 안민석 위원께서 감독이 정말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임용되는, 다시 돌아오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과연 문체부가 거의 1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그것 지휘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하나하고요. 그 이전에 각 NOC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IOC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회장 선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계의 모든 문제를, 비리와 편파 판정과 모든 문제점들을 국가가 예를 들면 관장한다라는 얘기지요, 문체부가 하면. 그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WADA에 상임이사국으로 진출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이용대 사건이 있었듯이 도핑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위가 설립이 되면 그 밑에 WADA도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잘해야 되겠고, CAS·중재위원회…… 이번에 이용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CAS가 나서서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등 모든 게 다 연루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차원에서 그림을 다시 한번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떠나기 전에 노진규 선수가 수술한 것이 우리 쇼트트랙의 전력에 큰 차질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수가 수술을 하고 다시 선수생활을 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될 텐데 차관께서 병문안을 가셔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라고 선심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제도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차관께서 가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누군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서 그분이 늘 생색을 냅니다. 물론 국가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체육인복지법이 시급하게 빨리 거론돼서 체육인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처우를 좀 낫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문제에서부터 체육인복지법 문제까지 구체적인 것들을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리고 지금 소치가 진행 중이라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지요. 늘 실패·패배 이후에 많은 걸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창을 대비하는 데 그런 것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장관님, 현재 네덜란드가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이 5개입니다. 놀랄 만큼, 물론 우리도 쇼트트랙에서 7개 금메달을 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창을 유치하면서 유일하게 메달 가능성이 있는 게 빙상 종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실업팀 창단하는 법안도 내고, 법안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실업팀이 활성화돼야 선수들이 그래도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고 또 실업팀이 많아야 선의의 경쟁 안에서 경기력도 향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가 항상 있는데 업무보고만 하지 마시고 실업팀이 창단될 수 있게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물론 규정에는 1000명 이상 있는 기업이나 공공단체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돼 있지만 만들지 않았을 때 기관평가나 이런 데 아무런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무용지물이 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이에리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윤 그러면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5분 드릴 테니까요, 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장관님 대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문제의 그 지도자가 소치로 가는 걸 아셨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2004년도에 우리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들이 쓴 진술서를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이 폭행의 가해자가 문제의 지도자입니다. 들어 보세요.

'나의 머리채를 쥐어 잡더니 버티지 못할 정도로 밀고 당기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 맞았습니다. 정말 그걸 보는데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심하게 때리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머리를 만지는데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이고 머리를 빗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계속 빠지는데 그걸 보고는 정말 서럽고 우리가 이렇게 맞을 정도로 잘못을 했나 싶

고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부모님들께도 맞지 않았던 뺨을 계속 때리셨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맞으면서 국가대표를 해야 하나, 하루하루가 두렵고 무섭고 괴로웠습니다', 또 다음 진술서입니다. 다른 선수 것입니다. '머리 잡고 막 흔들고 신발로 머리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때리고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고 자는데 머리가 아파서 자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도자가, 감독이 해임된 겁니다. 10년 후에 그 감독이 소치올림픽 감독으로 갑니다. 이 선수들이 지도자를 어떻게 보겠어요? 지도자를 존경하겠습니까? 그 지도자를 선임한 빙상연맹을 따르겠습니까?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한체육회에 대해서 어린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총괄책임 위치에 있는 정부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 대해서 이 어린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어린 선수들이 볼 때는 순 도가니가 따로 없다, 빙상판의 도가니다, 그 도가니는 선수들을 지옥훈련시키면서 폭력을 행사해 왔고 입시부정…… 제가 내일 기회 있으면 또 몇 가지 사례 말씀드릴게요. 입시부정 자행해 온 지도자, 이거 묵인해 온 연맹, 그 핵심에 있는 모 전무이사, 이걸 다 알고 있는 대한체육회, 아는지 모르는지 수수방관해 온 문화체육부, 이걸 어린 선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장관님, 이번에 가서 어린선수들하고 혹시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몇몇 선수들한테 한번 던져 봤어요. '요즘 어떠냐?' 10년 전에 국회에서 난리가 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수들은 지금 현재 이 행태가 과거에 비해서 달라졌다고 보지를 않아요. 이 빙상판 도가니를 주무장관인 유진룡 장관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국가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장관님은 국가 아마추어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국가에 의해 가지고 이 아마추어 스포츠시스템을 움직여 가는 거 아닙니까? 태릉선수촌을 저렇게 운영하는 국가가 세계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북한, 중국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국가 아마추어리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장관과 대통령이 지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문체부장관이 책임지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제가 정말 충정 어린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시면 저나 또 이에리사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예요. 이런 빙상판의 도가니를 또 다시 묵인해야 되겠습니까? 10년 전에 이미 국회에서 진상조사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라고 답을 다 줬어요. 10년 지난 지금 더 심하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리사 위원 광주조직위 사무총장님, 너무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U대회의 성격이나 이런 것.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이나 다른 여타 대회보다 U대회의 특성이 대학생들의 축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국제대회 준비보다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대학생 선수들이 와서 돈을 많이 써서 어디 관광을 가거나 쇼핑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저렴하게, 뭐라 그럴까요, 보편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광지나 쇼핑센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멀지 않게 근거리에 또는 선수촌 안에, 숙소에 가깝게 해서 비싸지 않은 물건으로 기념품들을 많이 전시해서 판매하는 건 또 어떤가 하는,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택시나 이런 거 카드요금 정산하는 문제는 해결 잘 되셨습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어떤 카드요금 말씀이십니까?

○이에리사 위원 택시에 카드계산기 설치하는 거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이에리사 위원 완료단계에 있습니까? 잘 됐네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 보려고 그랬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군인체육대회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지금 지자체하고 시설에 관련된 룸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국제기준에 맞도록 정리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준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핑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와서 기록을 내는 사람들이 인정받게 하는 것은 그런 시설이나 모든 것이 국제대회 규격에 맞아야 되는 거니까요.

다음에 세계군인체육대회 엠블럼이 두 개가 됐습니다. 그게 혼선이 없습니까? 어떻게 대회 엠블럼이 두 개가 됩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혼선에 대한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에리사 위원 그냥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느 대회든 엠블럼이 하나인데,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엠블럼이 두 개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조직위 입장에서는 문경에 대한 엠블럼을 사용하고……

○이에리사 위원 조직위 입장에서는 그렇고 문경시 입장은 또 문경이 들어간 걸 원하고, 저는 이런 대회는 처음 봅니다. 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장님, 꼭 조직위하고 문경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느 쪽이 조금 양보를 해서라도 한 개의 엠블럼이 나가야지 이렇게 두 개의 엠블럼이 나가는 건 굉장히 세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경에 제가 가 봤지만 대회가 끝난 다음에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여쭤 봤더니 개방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군체육부대 선수들은 어디로 갑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국군체육부대 선수들은 문경에 있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아니, 이 시설을 개방하면 체육부대 선수들은 어디에서 훈련을 합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기본적으로 국군체육부대 선수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시설의 사용 여유가 났을 때 대관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러면 그 방만한 시설을 어떻게 유지·관리 하시겠어요? 유지·관리 때문에 시설을 개방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에리사 위원 문경으로 이사 가실 때 제가 알기에는 국방부가 오금동에 있는 그것을 LH에다가 다 넘기고 그 돈을 받아서 문경에다가 국군체육부대를 하셨지 않습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래서 그것 또한 시설 유지·관리를 전부 다 국방부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지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러면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 국방부 안에서 그것 시설 유지가 가능합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것은 제 영역이 사실 아닌데 그것은 국방부하고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저는 다른 평창조직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국군체육부대 군인들 훈련장으로 너무 방만하게 지어졌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어려우시더라도 자꾸 예산을 많이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은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한 영역이나 이런 것들도 대책을 마련해서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알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인천 위원장님, 중계권 문제 잘 해결되셨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저희들이 원래 예상이 한 3000만 불 정도인데……

○이에리사 위원 잘 되셨으면 됐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예, 다 잘 됐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리고 그 시설이 너무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어떻게 잘 처리가 됩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그

것 몇 차례 질문이 나왔었습니다만……

○이에리사 위원 부실공사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성화대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성화대는 지금 기단 공사는 끝나고 개막식 연출 개념에 맞게 그 성화대를 디자인한 건데 대개 이달 안에 어떤 디자인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이에리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현수 선수 문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때 그 말씀 안 하셨다고 한다면 불공정을 묵인하고 간다, 덮고 가는 것이다…… 그래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중점적인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오히려 안현수 선수의 이번 것을 지적한 것은 바로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공정이 공정으로 가는 데,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는 데 큰 화두를 던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시의 적절했다, 그리고 덮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국민적 관심사를 불러 일으켰다 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대통령님의 지적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시스템화 시킬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물론 공정위원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스포츠의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재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스포츠가 페어플레이가 바탕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바로 스포츠로부터 이런 페어플레이가 될 때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공정이 공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장관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직위원장님 세 분 계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산술적인 평가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직위원회에 여러 가지 투자가 마련되고 그리고 흑자의 경기를 하려고 굉장히 나름대로의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무 산술적인 평가에 매달리게 되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대회를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산술적인 평가에 안 매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실제 조직위가 구성되면 지금 150명이지요,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우리 직원 말입니까?

○염동열 위원 예, 150명이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450명입니다.

○염동열 위원 450명입니까? 450명 중에 과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 기술상품 그리고 지역개발 이 부서가 있습니까? 태생적으로 과거의 대전엑스포가 됐든 여수엑스포가 됐든 지금까지 엑스포 조직을 보니까 이러한 조직 파트가 전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임팩트한 조직이 바로 그 조직이 돼야 되는데 이 조직이 불행하게도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누군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끌고나가는 그런 팀이 없다, 주체 세력이 없다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본 관점이기 때문에 장관님도 계시고 또 세 분 조직위원장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에 이제부터라도, 조직위가 태생적으로 잘못됐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개발, 또 관광 인프라 그리고 지역개발에 연계된 것을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한 말씀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지금 조직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대회를 만드느냐가 단순히 대회 하는 때뿐만이 아니라 그 후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장관님, 하여튼 꼭 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요.

김영수 조직위원장님도 한 말씀 주시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특

히 관광에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우리 인천에도 지원본부라는 별도의 기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한번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있는 관광 인프라, 문화 인프라를 그냥 브로슈어화 시켜서 그때 임시로 쓰지 마시고 부족한 관광 인프라면 미리 우리가 더 구축을 해야 되고 연결해야 되고 그것을 파생상품으로 만들어야 되고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서 인바운드 관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서부터 준비가 돼야 되고 상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9월 아시안게임 때 실질적으로 만개할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아시안게임을 통한 관광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박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의화 위원장님 모처럼 나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정의화 오늘 많이 잘 배우고 갑니다.

○위원장 김재윤 감사합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제가……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교문위 상임위는 2월에 끝나서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특위 차원에서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두 분 간사님하고 이 제안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올림픽 끝날 때까지 지도자라든지 쇼트트랙 빙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중단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언론이나 국회나 정부나.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지도자들이 정말 도덕적으로 용납하지 못할 그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정부가 체육회에서, 빙상연맹에서 감독으로 선임을 하고 장수로 정해서 싸우라고 임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시기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봐요. 시기를 기다리면 되는 건데, 이게 10년 이상의 문제인데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수의 목을 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타이밍적으로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보고요.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폐막할 때까지 일체의 이 논의를 중단하고 대신에 폐막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하자, 국회부터 나서자,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이 빙상연맹 회장입니다. 회장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위되는 분인데 그분이 아니고 제가 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부회장 맡고 있는 분이 실질적인 회장이거든요. 그분이 이 문제의 모든 중심에 있다고 지금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그분은 우리나라 쇼트트랙에 아주 현격한 업적을 이룬 분인데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해명할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폐막되고 난 다음에 이 특위에서 그분을 출석시켜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비난이라든지 또 불편한 진실 그리고 그분의 해명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평창특위가 포함됐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지 이후에 우리나라 겨울 동계올림픽이 잘 운영될 거기 때문에 폐막 이후에 그 부회장을 불러서 특위 차원의 청문회든 뭐든 그런, 뭐 청문회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안민석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소치 올림픽 끝난 다음에 우리 특위에서 평가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치에서 혼신을 힘을 다해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 여러분께 저는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많은 금메달을 따면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얼마나 많은 메달을 따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올림픽 정신에 걸맞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는 축하를 해 주시고 또 못 딴 선수들에게는 격려해 주시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현수 선수와 관련해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오갔는데요, 저는 안현수 선수 아버지의 인터뷰를 우연히 읽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국 사람으로서 애국가를 불러야 하는데

러시아 국가를 부르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기쁨을 한국 국민이 아닌 러시아 국민과 나누니 마음이 아팠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끝에 '이제 원망이 사라졌다' 그랬는데요, 저는 이러한 원망이 없는 체육행정 또 체육계가 잘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남북공동선수단 구성 문제라든가 남북 선수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장관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천아시안게임도 있고 문경군인올림픽도 있고 평창동계올림픽도 있고 그래서 저는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는 부분과 함께 공동개최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장관님께서 남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회의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현뿐만 아니라 남북 체육 교류가 더욱더 활성화돼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의 염원을 이루는 데 기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대회의 준비상황과 현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질의와 격려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체육계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정성 강화 시스템 구축, 지자체 유치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합리적 지원, 국제대회 관련 IT 부분의 효율적 관리 등에 대하여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서 지역홍보,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 북한 대표팀 참여 관련 부처 협력의 필요, 경기장 신설·보수 등 대회시설 준비 철저, 조세감면을 통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5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예산부족 상황에 대해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대회 조직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유념하여서 원활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진룡 장관님여야 모두가 다 칭찬하는 장관이신데요, 우리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김영수 위원장님은 국회의원도 지내셨고 문체부장관도 지내셨고, 또 김성일 위원장님은 공군참모총장을 지내셨고, 정의화 위원장님은 5선 의원님이시고 국회 부의장을 지내셨고, 또 김상기 위원장님은 육군참모총장을 지내셨습니다. 각 조직위원회의 위원장님들이 막강한 분들이십니다. 위원장님들께서 그리고 또 장관님께서 이러한 국제경기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진룡 장관님을 비롯한 각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권은희	김재윤	김 현	박대동
박혜자	백재현	안민석	염동열
윤관석	윤호중	이에리사	이재영
이한성	최동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 진 대
전문위원	박 명 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 진 룡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 영 수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 성 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정 의 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김 윤 석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 상 기